통일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28호 【루계 제2602호】

주체109
(2020)년 7월
11일
토요일
음력 5월 21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 서거 26돐이 되는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주체의 최고성지를 우러러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인 김재룡내각총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우리 인민이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높이 모신 불세출의 대성인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림상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림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시여 이 땅우에 자주강국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미증유의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업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펴나는 강대하고 존엄높은 사회주의조선의 위상을 만천하에 떨쳐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김일성주석은 자주시대의 개척자, 선도자이시다

행성에 끝없이 굽이치는 위인경모의 정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로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사회주의위업, 반제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빛내이시여 파란많은 20세기를 미증유의 전설적기적으로 수놓으신 절세의 위인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다함없는 경의를 드리고 있다.

김일성주석의 가장 귀중한 유산—주체사상

《시대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시공간적한계를 가지지 않는 사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조선의 지도사상이며 세계자주화위업의 지도리념으로 되고있는 주체사상이다. 이 위대한 사상리론적 재부는 인류를 위해 남기신 김일성주석의 귀중한 유산이다.》

방글라데슈신문 《데일리 포크》가 전한것처럼 주체사상이야말로 그 보편적진리성과 완벽성, 영원한 생명력으로 하여 인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공인된 지도사상이다.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에게 있어서 고귀한 지침으로 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상리론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고있다.

로씨야인터네트신문 《브레먀 뻬레몬》은 이렇게 전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자주시대의 개척자, 선도자이시다.

일찌기 조선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신 그이께서는 혁명활동의 첫 시기에 주체사상의 진리를 탐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그 누구도 조선의 독립을 선사해줄수 없다는 자주적신념을 지니시고 간고한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에짚트신문 《알 나쉬르》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주체사상의 창시는 지난날 제국주의의 침략과 략탈, 지배와 예속밑에 온갖 수난의 대상으로만 되여오던 피압박근로대중에게 운명개척의 길을 명시해준 력사적사변이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인류는 수천년세월의 암흑을 깨뜨리고 자주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력사무대에는 세계자주화의 도도한 흐름이 펼쳐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석께서 조선혁명을 이끄시는 실천투쟁속에서 창시하신 사상이라고 하면서 캄보쟈신문 《노코르 톰 데일리》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은 백과전서적인 사상으로서 그 어느 시대에도 다 적용되는 영원한 《현재형》의 학설이라는것이 주체사상신봉자들의 견해이다.

국제적판도에서 광범히 연구보급되고있는 주체사상은 현시대의 가장 전파력이 강한 사상이다.

김일성주석의 유산인 주체사상은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자주의 기치높이 조선혁명을 전진시키신분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원칙을 구현하시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한평생을 격찬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뜨겁게 울려나오고있다.

베네수엘라의 인터네트홈페지들인 《엘 끌롭 데 라스 나씨오네스》, 《씨따라마가지네》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일제의 군사적강점을 끝장내고 조선을 해방하시였으며 동방에서 처음으로 되는 인민민주주의국가를 창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의 무력침공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으며 주체적인 사회주의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관철되도록 하시였다고 전하였다.

아랍조선협조리사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자주의 기치높이 조선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투철한 자주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시여 그 어느 나라 식도 아닌 조선의 실정과 인민의 리익에 맞는 건국로선을 제시하시고 조선땅우에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일떠세우시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에짚트신문 《알 미쓰리 알야움》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후 외세의 《쎄브》가입 요구를 단호히 배격하시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길을 밝혀주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도록 하시였다.

또한 자체의 힘으로 강력한 국방공업의 토대를 다지는 한편 조선인민군을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지키도록 하시였다.

로씨야 정일봉명칭 울리야놉스크주 로조친선협회 위원장은 이렇게 칭송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주체의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훌륭히 건설되였으며 이는 인류의 희망의 등대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뚫고헤치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향도하여왔다.

주체사상의 거대한 생활력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붉은기가 내리워진 지난세기 말엽에 더 힘있게 과시되였다.

리비아 쑨불라국제친선구락부 총서기,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은 김일성주석은 조선을 위대한 자주강국으로 전변시키신 걸출한 위인이시다, 주체적립장을 변함없이 고수하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혁명은 언제나 백승의 한길로만 전진할수 있었다고 찬양하였다.

인류자주위업실현에 바쳐진 고결한 한평생

《김일성주석은 반제투쟁의 기치를 추켜드시고 세계자주화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인류가 끝없이 흠모하는 20세기 걸출한 위인이시다.》(로므니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들뿐아니라 여러 나라의 출판보도물도 온 세계의 자주화를 줄기차게 전진시키신 절세위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네팔인터네트잡지 《네팔투데이》는 김일성주석의 한평생은 인류자주위업실현에 바쳐진 고결한 생애였다, 주석께서는 세계피압박인민들이 자기의 힘과 투쟁으로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할수 있다는 민족해방운동의 지침을 밝혀주시였다, 또한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고 전하였다.

로씨야신문 《로씨스까야 가제따》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정규군의 지원이나 국가적인 후방도 없이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시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시고 중국혁명을 적극 성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후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반제자주에로 나아가는 나라와 인민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시였다.

그이의 영상은 참다운 국제주의자의 귀감으로 만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을것이다.

김일성주석의 국제주의적 의리는 아프리카대륙의 방방곡곡에 일떠선 새 생활창조의 거점들에도 깃들어있다고 하면서 나이제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조선이 아프리카나라들을 원조한것은 남들보다 유족해서가 아니였다.

아프리카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완전한 정치경제적독립을 이룩하고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주석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심에서였다.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은 김일성주석의 국제주의적의리를 언제나 잊지 않을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인터네트신문 《르몰》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반제자주위업, 식민지민족해방투쟁사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기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지 26년이 되였지만 인류자주위업에 쌓아올리신 그이의 공적은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절세위인의 사상과 업적은 세기를 이어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절세위인들의 념원, 인민의 리상

온 겨레를 품에 안아주시여

천태만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널리 헤아리는 대범하고 통이 큰 인심을 도량이라 하고 아량있고 너그러이 대하는 친화력을 포용력이라고 한다.

겨레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 대성인이시다.

그이께서는 자주를 지향하고 애국, 애족, 애민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그들모두를 뜨거운 믿음과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고 계시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 량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 등 각계층 민족성원모두를 반일애국의 길로 이끄시여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후에도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각계층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시여 새 민주조선건설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개선연설을 들으며 그이의 탁월한 정치적식견과 넓은 도량에 감복한 광범한 근로대중이 새 조국건설에 자기의 힘과 지혜, 열정을 다 바치였다.

만물을 가리지 않고 빛과 열을 주는것이 태양이며 크고작은 강물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것이 무변광대한 바다이다.

외세에 의한 나라의 분렬로 우리 민족이 자주냐 외세의존이냐, 애국이냐 매국이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놓여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내놓으시고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온 민족을 단합시키는 애국애족의 정치, 광폭정치를 펴시였다.

1948년 4월 남북련석회의가 조국통일운동사에 력사적인 첫 민족적회합으로 빛나게 장식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 애국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이든 포섭하시는 숭고한 덕망이 있었기때문이다.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은 그 어떤 주의주장이나 정견도, 재산의 유무도, 출신성분이나 어제날의 행적도 아닌 애국심과 민족적량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이라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관점이고 립장이였다.

그이의 뜨거운 민족애와 한없이 넓은 도량에 이끌리여 김구, 김규식, 엄항섭, 조완구 등 남조선의 많은 애국인사들이 북행길을 단행하여 평양에서 있은 력사적인 대회합에 참가하였었다.

뜻깊은 그 나날에 대동강반의 쑥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참석밑에 북남인사들의 협의회가 열리였고 그날의 회합을 기념하여 후날 쑥섬에 건립된 통일전선탑은 민족대단결실현을 위하여 수령님께서 바치신 로고와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오늘도 길이 전하고있다.

민족분렬의 년륜이 덧쌓이고 겨레의 통일열망이 높아갈수록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도록 하는데 자신의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언제인가 재미동포들이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였다.

그들을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킨다면 민족의 대단결을 능히 실현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크기가 서로 다른 다섯손가락을 하나로 합치면 주먹이 되듯이 정견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로 굳게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살든 남에 살든 해외에 살든 관계없이 민족단합과 통일이라는 하나의 종착점을 향하여 애국의 돛을 달고 인생의 노를 저어가도록 굳게 믿고 손잡아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도량과 포용력에 감복하여 남조선과 해외의 통일애국인사들이 구름처럼 평양에 모여들었다.

주체80(1991)년 12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전세계평화련합총재 문선명선생을 만나시였다.

접견석상에서 문선명선생은 주석님께서 극과 극의 위치에 있는 저같은 사람을 초청하여주시고 만나주시는것은 보통 용단을 가지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라는것을 알고있다고 하면서 주석님의 도량이 하늘같고 사랑과 인품이 진정 위대하시다는것을 이번 길에 잘 알게 되였다고 말씀올리였다.

당시 그의 평양방문소식을 전한 재미동포사회의 한 언론은 《반공》으로 얼룩진 그같은 사람에게 고향땅에 발을 붙일수 있게 해주고 과거허물을 탓하지 않고 만나신 주석님의 넓은 도량과 포용력은 참으로 위대하다, 쇠붙이가 자석에 끌리우듯, 지구가 태양에 끌리우듯이 뭇사람들이 그분께 매혹되여 평양으로 가는 세상리치를 우리도 이제는 알게 되였다고 전하였다.

그때를 회고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분렬된것도 비극인데 우리 민족의 손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이 마당에서 과거의 잘못을 가릴게 있는가고,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도 같은 뜻을 가지고 모두 단결해야 한다고, 그래서 문선명일행도 만나주었다고 하시였다.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온 겨레가 하나로 뭉쳐나갈 표대가 있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조선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할것없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하며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모두다 나라의 통일과 번영에 기여할데 대한 그이의 민족대단결리념과 넓은 도량과 포용력, 숭고한 민족애와 인덕의 결정체이다.

그이의 숭고한 동포애와 덕망에 매혹되여 윤이상, 문명자를 비롯한 많은 민족성원들이 민족단합과 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삶의 좌표를 정하고 한생을 살았다.

세상에는 조국애, 민족애가 강하고 나라와 민족앞에 쌓은 공적으로 하여 이름을 남긴 위인들과 명인들은 있지만 위대한 수령님처럼 천하를 움직이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시고 민족에 대한 열화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한생을 불태우시며 민족을 위하여 크나큰 업적을 쌓으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대성인은 없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보여주는것처럼 곡절많은 주인공들의 극적인 인생전환은 그들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귀중히 여기시며 과거허물도 백지화하시고 너그러이 대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포용력이 있었기때문에 이루어진것이였다.

숭고한 민족애와 덕망으로 온 겨레를 애국애족의 길로 이끄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절세의 애국자,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민족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본사기자 리 설

조국통일을 필생의 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필생의 위업이였으며 절절한 념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분렬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을 무엇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해방후 남조선에서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단선단정》 조작책동으로 민족분렬이 고정화될 위험이 조성되였을 때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여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시고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렬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로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신분이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어느 하루도 심려하시지 않은 날이 없으며 어느 한때도 편히 쉬신 날이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밝힌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여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 지침도 마련해주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겨레는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시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시고 더욱 강화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적단결의 기초로 삼으시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내세우시였으며 넓은 도량과 아량있는 포용력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의 사상과 리념,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애는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과감히 나서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드팀없는 의지를 안으시고 통일위업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령도업적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시고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는 진로를 밝혀주시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여 우리 겨레가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높이 들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굳건히 계승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온 겨레를 힘있게 불러일으키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보고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있다.

통일의 앞길에 의연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과 유훈을 받드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김 영 일

시

아, 7월이면

리 송 일

7월이 오면
작열하는 태양보다 더 뜨거이
마음가득 사무치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생각

한평생 어느날, 어느 한시
조국과 민족 잊으신적 있었던가
20성상 혈전만리 피로 찾으신 조국땅에서도
분렬된 겨레 위해 마음 불태우신분

남쪽으로 밀려가는 먹장구름 바라보아도
간밤에 소쩍새 울음소리 들려와도
가슴뭉클 어리여와라
남녘겨레들 걱정에 잠 못 드시던 수령님 영상

가정이 흥하기를 바라는 아버지마음으로
떨어져 사는 자식 못 잊는 어머니심정으로
한평생 민족의 어버이되시여
세월의 모진 풍파 다 이겨내신 수령님

갈라져 사는 겨레의 고통 씻어주시려
통일의 진로 밝혀 맞으신 새날 얼마이시고
통일애국의 큰 뜻으로 동포들 이끌어주신
심혈의 해와 달은 또 얼마였던가

그 불면불휴의 로고 빛나는 업적
뜨겁게 어려오는 7월이여서
오, 7월이면 이 땅 이 하늘에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뜨거이 어려오는 수령님의 그 모습

아, 세월이 흐른들 잊을수 없어라
한평생 통일과 민족위해 바치신
수령님 헌신 불멸의 그 업적을
7월과 더불어 더욱 찬란히
위대한 생애 후손만대 길이 빛나리라!

꽃피는 내 나라, 내 조국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7월이 오면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 하는것을 더욱 가슴미여지게 느끼군 한다. 바라고 기다려도 선뜻 다가오지 않는 행운, 그것이 바로 인민이 누리는 수령복이다.

우리 인민은 복중의 복인 수령복을 대를 이어 누려가고있는 참으로 행복한 인민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어제날 빛을 잃었던 조선이 자주와 존엄의 나라로 행성에 빛나고 우리 인민은 자주적인민의 존엄과 긍지를 안고 행복속에 살아오고있다.

인민이 누리는 수령복에 대해 말할 때 나에게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군 한다.

이 땅의 남녀로소 누구나 받아안는 복이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받은 복은 남달리 더욱 크고 값진것이였다.

10대시절에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선생님께서 울리신 파발리의 총성을 들으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심이 마음속에 싹트고 고향 풍산땅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만나뵙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마음속에 더욱 억세게 간직했던 할아버지였다.

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인생의 참된 길을 찾았기에 할아버지는 해빛 한점 스며들지 않는 남녘의 차디찬 감방속에서도 수십년간이나 수령님을 믿고 당을 믿고 끌까지 견결히 싸울수 있었다.

이런 나의 할아버지를 수십년이 지나도록 잊지 않으시고 기어이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도록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신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은덕에 대한 고마움을 할아버지는 조국에 돌아온 후 늘 우리 집안사람들에게 눈물겹게 토로하군 하였다.

어디 이뿐인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할아버지를 《신념과 의지의 화신》,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로 온 나라에 내세워주신 따뜻한 그 사랑.

만민의 축복을 받으셔야 할 뜻깊은 태양절날 어버이수령님께서 할아버지의 병상을 찾으시여 리인모와 같은 신념과 의지의 화신을 가진것은 조선로동당의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입당당시의 당원증번호와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당원증과 금시계를 친히 수여해주시고 몸소 찍어주신 기념사진은 우리 가문의 가보로 고이 간직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녘의 감방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던 할아버지의 정상이 못내 가슴아프시여 인민들이 지성담아 올린 선물새털이불마저 로전사에게 보내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길에서도 할아버지의 병상태를 료해하고 건강회복대책을 세우도록 해주신 감동깊은 사연들, 그 심혈과 로교를 어찌 한두마디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은정은 그대로 귀중한 보약, 사랑의 불사약으로 되여 조국에로의 귀환후 불과 며칠밖에 못산다던 남조선의학계의 진단을 부정하고 할아버지는 조국의 품속에서 14년간이나 행복속에 보람찬 삶을 누릴 수 있었다.

하기에 할아버지는 꿈같은 행복과 솟구치는 격정을 글줄에 담아 《우리는 수령복이 있습니다》를 비롯한 여러건의 글들을 로동신문을 비롯한 출판물들에 발표하였었다. 각계층 조국인민들로부터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수령복에 대한 그 글들은 할아버지의 심장에서 울려나온 고마움과 격정의 웨침이였고 자기 하나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이 마음속에 간직해온 긍지와 행복감의 거센 분출이기도 하였다.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인민이다.

행성을 향해 이런 긍지높은 웨침을 터치는것이 우리 인민밖에 세상에 더 있는가.

위대한 수령님들을 삶과 운명의 태양으로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오늘은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살며 일하고있으니 그 긍지와 자부심은 우리 집안을 비롯하여 이 땅, 이 하늘가에 가득 넘쳐나고 있다.

사상도 령도도 풍모도 수령님들 그대로이시고 주시는 사랑도 수령님들의 해빛같은 사랑 그대로이시다.

그 따뜻한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이 땅 그 어디서나 인민을 위한 행복의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으니 인민이 안겨사는 사회주의 우리 집은 원수님 계시여 밝고 따뜻한 우리 집, 모진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우리 집, 미래가 창창한 사회주의 우리 집이다.

온 나라 인민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할아버지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시대에만 나올수 있는 신념과 의지의 전형으로 높이 내세워주시였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할아버지의 이름도 값높이 불러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정녕 위인이 계시여 복받은 우리 할아버지도 있고 행복한 우리 인민의 어제와 오늘이 있으며 후손만대로 복락을 누릴 우리 민족의 창창한 래일도 있다.

나는 내 나라가 더욱 강대해지고 우리 인민이 영원히 행복속에 살려면 령도자를 잘 모셔야 한다고 하시던 할아버지의 당부를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모두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끝까지 받들고 따르는 충정과 보답의 한길에서 생의 아름다운 자욱을 새겨가겠다.

오보람
(리인모선생의 외손녀)

원수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잠 못 이루는 7월이다.

온 나라 인민들과 산천초목이 통채로 눈물에 잠겼던 비애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건만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인민들의 마음속에 어버이수령님의 태양같은 그 미소는 더더욱 사무치게 안겨들고있다.

어찌 세월이 흐른다고 잊을수 있으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것은 인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것이며 가장 보람있는 일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라고 하시며 비내리는 아침에도 눈내리는 깊은 밤에도 쉬임없이 인민을 찾고 또 찾으신 어버이수령님.

지금도 만경대갈림길에 서면 해방직후 꿈결에도 그리던 고향을 곁에 두시고 강선의 로동자들을 찾아 떠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어려온다. 사연깊은 철의 기지를 찾으면 무너진 벽체우에 앉으시여 폐허를 하루빨리 가시자고 하시던 수령님의 절절한 호소가 들려오는 듯싶다.

농촌에 가시면 농장원들과 허물없이 마주앉으시여 농사일을 의논하시고 어촌에 가시면 어부들과 함께 그물도 만져보시고 수천척지 하막장에 들어가시면 탄부들의 험한 손도 스스럼없이 잡아주시던 그이이시다.

이 땅 그 어디에나 그이의 따사로운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인민사랑의 자욱자욱이 어려있지 않은 곳이 없다.

하기에 행복의 요람속에 인민을 재우시고 이 밤도 사랑의 길 떠나시는 수령님이시라고 온 나라 남녀로소가 삼가 부르던 노래의 구절구절이 오늘도 만사람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행복의 요람속에 인민을 재우시고
이밤도 사랑의 길 떠나시는
수령님
찬이슬 내리는데 또 어데 가시옵니까
수령님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편히 쉬시옵기를
수령님 수령님 인민들은 바라옵니다
…

부르면 부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인민을 위한 길에 한생을 고스란히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가 뜨겁게 어려와 누구나 눈시울 축축히 젖어들게 한다.

인민들 누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잠시라도 쉬시옵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아뢰였건만 그이께서는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시며 춘하추동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한순간 휴식마저 잊으시고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걷고 걸으시던 인민을 위한 그 길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걷고 또 걸으시였고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쉬임없이 이어가고계신다.

인민들이 단잠에 든 깊은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찌물쿠는 삼복의 무더위와 손발이 얼어드는 추운 겨울에도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고 언제나 인민을 찾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어느 깊은 밤에도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리용할 무궤도전차를 몸소 타시고 시민들이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인민들이 앉을 평범한 좌석에 앉으시여 전차의 기술적특성지표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몸소 가늠해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인민들은 뜨거운 격정으로 눈시울 적시였다.

경치좋은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희한한 문수물놀이장에도 인민의 어버이의 불면불휴의 사색과 정력적인 령도가 깃들어있다.

근 11만㎡에 달하는 부지면적에 각종 수조와 물미끄럼대, 물놀이기재들이 짝 들어찬 야외물놀이장과 실내물놀이장으로 구성된 문수물놀이장의 113건이나 되는 형성안들을 하나하나 완성시켜주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새우신 밤은 얼마이며 바치신 로고는 또 얼마이던가. 그 형성안들가운데는 그이께서 친히 새롭게 발기하시고 하루밤동안에 흠잡을데 없는 완벽한것으로 완성시켜주신 실내체육관형성안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전해지고있다.

참으로 자신의 천만고생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으시고 오직 인민의 행복을 가꾸시려 그이께서 걸으신 길, 지새우신 밤들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온 겨레가 소원하는 조국통일을 위해 나라의 새벽문도 제일먼저 여시고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현지지도의 멀고 험한 길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들이 행복의 단잠을 잘 때 그이 타신 야전차는 령길을 넘고있었고 삼라만상이 깊이 잠든 이른새벽에도 그이의 집무실창가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있었다.

그 무수한 헌신의 낮과 밤들이 모이고모여 공화국은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강국으로 우뚝 일떠섰고 인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 삶을 빛내이고 있다.

그럴수록 이 나라 인민모두의 가슴마다에 더욱 갈마드는 단 하나의 소원,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과 건강이다.

하기에 누구나 한목소리로 간절히 아뢰이고있다. 눈물겹도록 마음속진정을 터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

본사기자 유금주

세기를 이어 울려가는 노래

-가요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들으며-

가요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공화국인민들이 제일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들중의 하나이다. 세상에는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공화국인민들은 어찌하여 이 가요를 그토록 사랑하고 즐겨 부르고있는것인가. 그것은 가요 《세상에 부럼없어라》에 공화국의 훌러온 력사와 인민의 존엄이 그대로 어려있기때문이다

노래를 부르느라면 위대한 수령님들의 시대에 행복만을 누리며 살아온 인민들의 긍지높은 모습들이 저절로 떠오른다.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여 자주적인민의 존엄을 최대로 누려온 긍지높은 나날들,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위해주고 아껴주는 어버이의 다심한 손길아래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쓰고살 걱정, 자식공부시킬 걱정 등 온갖 걱정을 모르며 이 세상 부러운것 없이 살아온 웃음넘친 나날들,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온 나날들. …

공화국인민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자기들의 삶을 노래에 담았다.

이 행복, 이 기쁨은 누가 주었던가. 위대한 수령님이 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거듭거듭 안겨주신것이였다.

노래에도 있듯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였고 그 해빛보다 따사로운 품은 정든 《우리의 집》이였다.

온 나라 대가정에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여 자랑높고 행복했던 그 나날들을 공화국인민들은 세월이 천만년 흘러간들 결코 잊을수 없을것이다.

하기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는 이 땅에서 세기가 바뀌여져도 진할줄 모르고 계속 격조높이 울려가고있다. 공연무대와 가정들에서, 학교와 일터마다에서, 거리들에서…

오늘 공화국이 가는 앞길에는 적대세력들의 악착스런 책동으로 하여 시련과 장애가 많이 가로놓여있다. 이 나라와 인민의 자주권과 발전권, 생존권을 빼앗으려고 적대세력들이 휘두르는 제재와 압박의 도수는 최절정으로 치닫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의 인민들은 조금도 두려움없이, 신심드높이 창조와 건설의 동음을 힘차게 울려가고있다. 그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도 계속 높이 울리고있다.

비록 모든것이 풍족하진 못하지만 인민은 자기 조국과 제도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긍지감에 넘쳐 이 노래를 부르고있다.

남들보다 풍족하게 살지는 못한다 해도 자주적인 인민으로 존엄높이 살고있는 이 행복을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기에, 오늘은 어려워도 만복의 밝은 래일이 기어이 온다는것을 너무도 확신하기에.

오늘 공화국인민들에게 존엄을 주고 행복을 주고 밝은 미래에로 이끌어주는 위대한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그이의 인민사랑은 천하를 울리고 그이의 세련된 령도는 세월을 주름잡으며 이 땅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펼치고있다.

온 나라의 남녀로소가 《어버이》라 부르며 안기고 따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공화국은 령도자와 인민이 뜻과 숨결을 같이하는 일심단결의 나라,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이 되여 세인의 각광을 모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우리모두가 불굴의 혁명신념과 불같은 조국애, 견인불발의 투쟁정신으로 계속 힘차게 투쟁한다면 난관은 격파될것이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실생활로 될 새로운 승리를 맞이하게 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우리 힘 꺾을자 그 어데 있으랴
풍랑도 무섭지 않네
백두의 넋을 이어 빛나는
내 조국 두렴 몰라라
…

적대세력들의 최후발악에 정면돌파전으로 맞서 나아가는 공화국의 앞길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로 더 높이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백두산악같은 담력과 승리의 기상을 안고 조선은 힘차게 나아가며 더 좋은 미래를 앞당겨 건설해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한 령도를 받들어 사회주의대건설의 불길을 지폈던 전세대들처럼 기어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부강하고 번영하는 강국을 일떠세우려는 공화국인민들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탁월한 령도자로, 어버이로 모신 조선의 대가정에서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높이 울려퍼져갈것이다.

본사기자 강류성

인민의 행복속에 깊어가는 평양의 밤

섬나라의 철면피성

최근 력사외곡과 독도령유권문제를 둘러싼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마찰이 커가고있다.

얼마전 일본당국은 산업유산정보쎈터에 과거 군함도(하시마섬) 등에서 조선사람들에 대한 강제동원이나 차별화는 없었다는 거짓증언자료들을 전시해놓고 개방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한편 일본외무성산하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1905년이전부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벌려왔다는 동영상자료를 유튜브에 올려놓고마치 독도가 오래전부터 저들의 령토인것처럼 이러한 자료들을 많이 공개하겠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면서 이런 자료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령토》라는데 대한 사람들의 리해가 더욱더 깊어질것이다, 그것을 학생들의 교육에도 활용함으로써 다음 세대들에게도 독도가 일본령토라는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가소롭게 궤쳐댔다.

지금 온 겨레는 강제징용과 독도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력사외곡책동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있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은 지난 조선강점시기 저들의 범죄적인 침략전쟁수행을 위해 조선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강제련행, 랍치, 유괴하였다.

일제의 만행에 의해 강제징용된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인간이하의 천대를 받으며 참기 어려운 고역을 치르고 종당에는 고향땅을 다시 밟아보지도 못하고 무주고혼이 되였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불구가 되거나 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돌아왔다.

군함도가 바로 과거 일제가 수많은 조선청장년들을 죽음의 고역장들에 강제로 끌고가 가장 야수적이고 살인적인 방법으로 노예로동을 강요한 죄행을 고발하는 수많은 력사의 증견자, 성토장들중의 하나이다.

천인공노할 죄악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배상하는것은 마땅한것이다.

그런데도 일본당국은 강제로동은 아니였다, 임금지급을 동반한 합법적인 근로로동이였다는 억지주장을 해대며 과거죄악을 덮어버리려고 철면피하게 놀아대고있다.

강제징용범죄를 정당화하는 놀음을 벌려놓은 일본당국의 망동은 섬나라족속들이 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철면피하고 오만방자한 무리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

이 지도들은 1914년부터 30여년간 일본 궁내성 도서료(왕실도서, 기록보관과 실록편찬을 담당하는 기관) 편수관으로 종사하면서 왕실력사연구를 해온 시바 가쯔모리가 1927년과 1931년에 제작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제땅이라고 생억지를 부리면서 황당한 동영상자료까지 공개하는 놀음을 벌린것은 일본당국의 령토강탈야욕이 얼마나 집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과거에 일제가 조선사람들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였다면 오늘은 그 후예들이 조상들의 죄악에 찬 력사를 딛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미쳐날뛰고있는것이다.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일본의 력사외곡책동과 독도강탈야망은 천년숙적에 대한 우리 민족의 증오와 복수심만을 더욱더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아직도 독을 쓰는 《보안법》

남조선에서 악명높은 《보안법》이 여전히 독을 쓰고있다.

얼마전 남조선대법원이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청학련대》) 전 간부들을 《보안법》위반에 걸어 징역형을 들씌운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이들로 말하면 지난 2006년부터 《청학련대》에 소속되여 남조선강점 미군철수와 반통일세력척결 등을 주장한 진보적인물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리명박파쇼《정권》은 지난 2011년 《청학련대》를 《북체제를 찬양한 리적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던 끝에 《보안법》위반에 걸어 기소하였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오늘 이들에게 징역형이 가해진것은 민족자주와 통일을 위해 의로운 활동을 벌린 애국청년들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파쇼적폭거가 아닐수 없다.

이것은 지난 보수《정권》시기에나 있을수 있는 반민족적범죄행위로서 남조선에서 진보적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것이다.

다 아는것처럼 남조선의 《보안법》은 구시대를 대표하는 반통일악법이고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파쇼악법이다.

세상에 출현한 때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십년간 반통일세력의 민족분렬책동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여온 《보안법》은 세계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반인권적인 악법으로 규탄받아오기도 하였다.

지금에 와서까지 이런 반통일적이고 반인권적인 파쇼악법의 피해자들이 생겨나고있는것은 남조선사회의 더없는 수치이고 비극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오늘 남조선 각계는 물론 이른바 립법기구로 자처하는 《국회》에서까지 《보안법》철폐문제가 상정되고있다는 사실은 이 파쇼악법철폐가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요구로 제기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행과 고통만을 주는 반통일파쇼악법은 하루빨리 철폐되여야 마땅하다.

본사기자 박철남

광고와 실체

남조선의 《미래통합당》이 《혁신》의 간판밑에 정강정책을 개정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고 한다.

리유인즉 지난 선거에서 참패당한것은 극우보수분자들과 그들의 주장을 전면에 내세운것과 관련되여있기때문에 8월중에 기존의 정강정책에 독립운동의 력사와 정신, 림시정부의 활동내용 등을 포함시켜 당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겠다는것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진보보다 더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겠다며 4.19민주화운동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초불투쟁정신, 로동권확보와 같은 진보정당들의 주요 정책내용들까지 반영하겠다고 설쳐대고있다고 한다.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는 적폐오물들의 교활한 민심사기극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보수패당이 민심의 배척을 받을 때마다 늘쌍 《뼈아픈 반성》, 《환골탈퇴》, 《혁신》에 대하여 곧잘 떠들어대였지만 실지로 달라진것은 쥐뿔도 없었다는것이 세간의 한결같은 평이다.

승냥이가 양울음소리를 낸다고 양이 될수 없듯이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반인민적악정과 부정부패로 쩌들대로 쩌든 보수패당의 정체는 결코 달라질수 없는것이다.

력대 보수패당의 추악한 과거사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보수패당의 원조상인 리승만《정권》을 보아도 외세의 각본에 따라 총칼로 수립되고 《북진통일》을 부르짖으면서 극악한 테로와 폭력으로 연명해온 독재《정권》이였다. 4.19인민봉기로 터져나오던 민주화열망을 땅크와 장갑차, 《계엄령》으로 짓뭉개며 권력을 빼앗아쥐고 남조선을 《철창없는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어놓은 18년에 걸치는 박정희역도의 《유신》독재시기 역시 초보적인 인권과 민주주의가 무참히 유린말살된 암흑의 시대였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의로운 투쟁에 떨쳐나선 광주인민들을 《폭도》로 몰아 피비린내나는 살륙전을 감행한 전두환역도의 집권시기는 또 어떠했는가. 외세에게는 아부굴종하고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파쇼악법들을 무수히 꾸며내며 집권 전기간 반역행위를 일삼아온것으로 하여 《태여나서는 안될 정권》으로 저주와 규탄을 받았다. 그뒤를 이은 보수《정권》들 역시 한바리에 실어도 짝지지 않는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이러한 《보수》의 썩은 늪에서 독버섯처럼 살아온 《미래통합당》이라고 달리 될수 있겠는가.

광주인민봉기를 《폭도들의 란동》으로 모독하는 등 지난 보수《정권》시기의 범죄자들을 극구 비호두둔하고 박근혜역도의 반인민적정책으로 말미암아 수백명의 나어린 학생들이 꽃망울도 펴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세월》호참사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꿰친것 등은 보수패당의 추악한 본심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그런데 속검은자 비단보자기 뒤집어쓴다고 이제 와서 《독립운동의 력사와 정신》, 《진취적인 진보》에 대하여 횡설수설하니 낯가죽이 곰의 발바닥보다 더 두꺼운 수작질이라 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요란히 광고한다고 해서 누구나 믿는게 아니다. 남조선의 민심은 《미래통합당》의 더러운 속심을 알아도 너무 잘 알고있다.

보수패당이 벌려놓고있는 《혁신》놀음을 두고 《더러운 개수작》, 《듣기만 해도 구역질 난다.》는 남조선 각계층의 목소리는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김영범

적폐검찰의 단말마적 발악

남조선에서 일련의 문제들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사이의 아귀다툼이 그칠새없이 벌어지고있다고 한다.

전 《국무총리》 한명숙의 부정부패사건에 대한 재조사문제와 검찰총장의 측근인물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간에 벌어진 싸움질이 그 하나이다.

알려진것처럼 최근 남조선의 언론들은 전 《국무총리》 한명숙의 부정부패사건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되였다고 폭로하였다. 이를 두고 남조선의 법무부는 전 《국무총리》의 부정부패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장관의 지시로 하달하였다고 한다. 이와 함께 진보개혁세력들을 물어메치기 위해 비렬하고 음모적인 방법으로 뒤조사를 벌리던 검찰총장의 측근인물과 어느 한 언론사 기자의 불법행위인 《검찰과 언론유착》의혹사건을 수사할데 대한 지시도 내리였다고 한다. 그런데 남조선검찰은 수사의 독자성을 무시하는 월권행위라고 반발하면서 이 사건들을 적당히 얼버무렸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맞서는것은 행정체계를 거스르는 용납할수 없는 일이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잘라먹고있다고 성토하면서 검찰이 법무부의 지시에 복종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한다.

법무부와 검찰간의 싸움질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를 놓고서도 법무부와 검찰사이에 대립과 마찰이 심해지고있다고 한다.

지금 법무부는 검찰이 적폐중의 적폐라고 하면서 7월중에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와 처장후보자추천을 마무리하려 하고있다. 《미래통합당》과 검찰이 이러저러한 구실로 이를 막아나서는 경우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무조건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있다.

반면에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족되면 저들이 지난 시기에 파쇼권력을 휘두르며 감행한 온갖 반인권적죄악들이 드러나는것은 물론 현 검찰총장이 첫째가는 수사대상으로 되거나 《식물총장》으로 전락될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보수야당과 한통속이 되여 이를 결사적으로 저지하려 하고있다.

법무부와 검찰간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다툼질을 놓고 남조선의 각계는 《통제되지 않는 권력(검찰)은 폭주기관차이다.》,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민심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지금 검찰총장이 민심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 무슨 수사의 독자성을 내흔들며 법무부와 충돌하고있는 실태를 보며 남조선의 언론들과 각계는 《윤석열이 당국에 맞서는것은 보수세력들의 지지를 얻어 대선후보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평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있다고 한다.

한번 입에 문 뼈다귀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승냥이처럼 저들의 파쇼적인 독재권력을 한사코 유지하려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남조선민심은 공정한 법을 지키는 법관이 아니라 적폐세력의 하수인이 되여 그들의 대변인노릇만 하는 검찰은 당장 해체되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비난과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안권일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차별책동 단죄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일본당국의 부당한 차별행위에 항의하는 금요행동이 일본문부과학성앞에서 진행되였다.

《COVID-19》확대와 관련한 학생지원금지불대상에서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제외시킨 일본당국의 차별책동을 규탄하여 전개된 투쟁에는 조선대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 재일동포들, 일본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선학교지원제도와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적용에서 조선학교 학생들과 나어린 유치반 아이들을 배제한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전염병사태에 대처한 학생지원금지불대상에서까지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차별한 일본당국의 비렬한 행위를 강력히 단죄하였다.

그들은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말라!》, 《모든 아이들에게 배울 권리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일본당국의 부당한 차별행위에 맞서 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총련과 일본의 지방자치체들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적용을 요구

조선학교 유치반들에 대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 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투쟁에 일본의 지방자치체들이 련대하고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지난해 조선학교 유치반이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적용에서 제외된 이후 문제의 조기해결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일본 지방자치체들과의 련대활동도 적극 벌려왔다.

결과 6월 26일 일본 효고현의 다까라즈까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외국인학교유치원에 대한 구제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채택하였다.

외국인학교 유치반에 다니며 다까라즈까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 동등한 지원을 보장할것을 요구한 《청원》은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다까라즈까시민의 회》, 《효고현외국인학교협의회》 등 17개 단체가 련명으로 제출한것이다.

한편 가나가와현 가와사끼시당국도 6월 일본정부에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모든 유아교육, 보육시설에 지원대책을 강구할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본사기자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비용은 오염을 유발한 주한미군이 책임지라》
남조선에서 반미투쟁 고조

남조선에서 미군기지의 토양정화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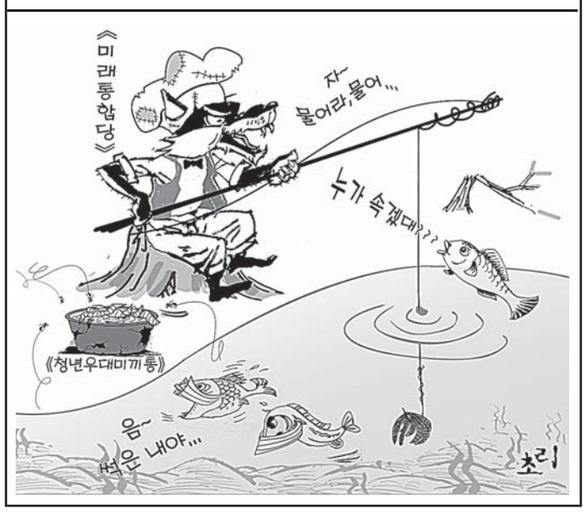
인천지역 환경,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는 7일 부평미군기지의 토양정화비용을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체는 이날 인천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정의를 바로세우고 환경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군기지 오염정화비용은 오염을 유발한 미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하였다.

참가자들은 미군기지내의 아직 반환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면 1천억원이 넘는 오염정화비용이 들것이라고 하면서 미군기지의 토양정화비용을 남조선주둔미군이 부담할것을 요구해나섰다.

본사기자

만평 미 끼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한 야만의 무리

지난 20세기 전반기 일제가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 통치시기에 감행한 강제로동범죄는 그 기간과 규모, 형태와 방법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였다.

1894년 청일전쟁을 도발한 때로부터 시작된 일제의 조선인강제로동죄악은 침략전쟁의 확대와 함께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되였다.

당시 일제에 의한 침략전쟁의 계단식확대는 막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의 소모를 초래하였으며 이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로동력이 고갈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방도를 모색하던 일제는 부족되는 로동력의 원천을 조선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징발과 가혹한 노예로동에서 찾았다.

일제는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녀자정신대근로령》 등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고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징용》, 《학도병》, 《정신대》, 《보국대》 등 각종 명목밑에 죽음의 고역장으로 내몰았다.

일제의 《징용》대상에는 직업이나 나이, 성별 같은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조선사람모두가 그 대상으로 되였다.

악착한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징용》으로 끌어가기 위해 강제련행, 랍치, 유괴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것은 말그대로 짐승사냥을 련상케 하는것이였다. 일제는 대낮에 마을에 달려들어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랍치, 강제련행하였는가 하면 밭에서 일하는 사람, 길가던 사람, 지어 잠자던 사람들까지 강압적으로 끌어갔다.

이렇게 강제련행, 랍치된 조선사람들은 조선국내 각지와 일본렬도, 남양군도, 필리핀 등 일제의 침략의 발길이 닿는 그 어디에나 끌려가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일제는 강제로동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였다.

악독한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전쟁터에 내몰아 총알받이로 써먹었는가 하면 탄광, 광산, 군수공장, 군사시설물공사장들에서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일본에서 발견된 1944-1945년 자료만 놓고보더라도 거기에는 당시 일본 전국에 있었던 549곳의 군사시설물공사장들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사람들이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고 지적되여있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의 고혈을 짜내면서도 그들의 로동안전과 생활조건 같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그들에게 차례진것이란 고작해서 보잘것없는 보리밥 한덩어리에 멀건 소금국이 전부였다.

허기진 배를 그러안고 하루 14~16시간 지어 20시간 이상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는 조선사람들에게 있어서 강제로동판은 그야말로 피눈물의 고역장, 죽음의 생지옥이였다.

강제로동으로 고역을 당하는 조선사람들의 참혹한 모습을 목격한 일본사람인 쇼지 노베는 이에 대해 《조선사람들은 노예들이였다. 그에 비하면 죄인은 도리여 편안하였다. 밀차를 두명이 미는데 뒤에는 몽둥이를 든 감독이 따라와서 뛰지 않으면 매질을 했다.

나는 말을 가지고있었는데 그 말도 그렇게까지는 부리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일제교형리들은 강제로동판에서 먹지 못하고 기력이 약하여 쓰러지는 조선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채찍으로 후려치고 구두발로 사정없이 걷어차며 몽둥이로 때려죽이였다.

그런가 하면 아무런 로동안전보호시설도 없는 곳에서 일하다가 로동재해로 무리로 생죽음을 당하는 참극이 매일과 같이 꼬리를 물고 빚어졌다.

오죽하였으면 《침목 1대에 조선사람 1명》, 《석탄 한삽에 피 한방울》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일제가 조선식민지통치기간에 수많은 조선의 청장년들과 소년들, 녀성들을 랍치,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고역장들에 끌고가 상상을 초월하는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무참히 살륙한 죄행을 일일이 다 꼽자면 끝이 없다.

강제로동피해생존자들과 령혼들이 오늘도 일본의 과거죄악을 피터지게 절규하고있다.

일본당국은 과거에 저지른 특대형조선인강제로동죄악에 대해 응당한 국가적책임을 져야 한다.

본사기자 한복순

일제에 의해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는 조선소년들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7개월만에 일떠선 대규모의 주택지구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공화국의 눈부신 전변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열기를 온몸으로 느낄수 있게 하는 부문은 건설부문이라고 할수 있다.

몇해전 공화국에서는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를 비롯한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을 도처에 일떠세워 아름다운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국가의 모습을 현실로 보여주었다.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속에 건설분야에서 이룩된 하나하나의 성과들에는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쳐 더 높이 비약해가려는 공화국의 담찬 모습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흔히 건설을 두고 그 나라의 경제발전과 문명수준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문구나 화려한 시가보다도 새롭게 일떠서는 건축물들과 그로 하여 변모되는 새라새로운 모습들을 보며 생활과 시대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공화국에서는 아무리 방대하고 어려운 건설대상도 짧은 기간에 불이 번쩍나게 해제끼는 비상히 빠른 건설속도가 창조되고있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로 말하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3(2014)년 1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과학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거리를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까지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건설장에 나오시여 건설정형을 료해하시며 몸소 이름까지 지어주신 주택지구이다.

흙먼지만 날리는 이곳에 착공의 첫삽을 박던 2014년 3월 여기에 웅근 하나의 주택지구가 몇달동안에 일떠선다는데 대해 머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부지면적만 해도 20여만㎡에 달하고 살림집만 해도 24개 호동의 천수백세대에 달하는데다가 10여동의 공공건물들, 여러개의 공원과 놀이터들을 비롯하여 상부구조물건설량만 놓고보아도 방대하기 그지없었다.

여기에다 넓디넓은 주택지구의 땅속에 그물처럼 뻗어내릴 수십㎞에 달하는 오수망과 우수망, 전기망과 체신망구조물들과 같은 복잡한 하부구조망건설까지 념두에 둔다면 기성관례로는 도저히 엄두도 내기 힘든 공사였다.

하지만 무슨 일에서나 불가능이라는것을 모르는 건설자들은 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

-무조건 해야 한다. 조선속도로 내달리자!

오직 이 하나의 정신으로 건설자들모두가 그야말로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내달렸다.

한명이 두몫, 세몫씩 일감을 걸머지고 교대가 따로없이 일하였다.

낮과 밤이 따로없는 건설장에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용암처럼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그리하여 착공식이 진행된지 불과 4일만에 한개 호동의 살림집기초콩크리트치기가 시작되였으며 이를 계기로 시공단위들사이에 집단적 경쟁열풍이 불었다.

대형정밀휘틀시공방법, 계단단번시공방법과 같은 대담하고도 혁신적인 공법들이 창안되여 단번에 한개 층씩 살림집골조가 일떠서는 비상한 속도가 창조되였으며 공사를 시작한지 3개월만에는 주택지구의 모든 건물들의 골조공사와 내외부미장이 끝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부망공사와 건물기초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대담한 립체전이 벌어지고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방대한 하부망공사도 결속되였다.

공사장전역을 휩쓰는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속에 하루가 다르게, 아니 한시가 다르게 위성과학자주택지구는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서서히 드러냈다.

불과 7개월만에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가 또 하나의 희한한 선경으로 태여나게 되였다.

수개월전에만 해도 번번하던 자리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건축미학적으로나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한 건물들이 짝 들어찬 하나의 주택지구가 번듯하게 자리잡았으니 이 놀라운 천지개벽앞에서 누구라없이 탄성을 터치였다.

은정과학지구의 이 천지개벽은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과 구상을 받들어 부닥치는 모든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맞받아 뚫고나가는 자력갱생의 강의한 정신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자기들이 더 많은 땀을 흘릴수록, 더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조국은 그만큼 더 젊어지고 전진한다는 이런 애국의 열의와 강의한 정신력이 있었기에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웅근 하나의 주택지구를 7개월동안에 훌륭히 일떠세울수 있었던것이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완공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단 결심하시면 무조건 제 기일에, 단숨에 해제끼는 공화국의 새로운 진군속도, 조선속도의 위력이 보다 뚜렷이 과시되였다.

하기에 어느 한 나라의 신문은 《조선에서의 속도창조열풍》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력사는 다계단으로 변혁이 일어나는 대고조속도, 최첨단을 돌파하며 세계에로 나아가는 비약의 속도,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실천으로 증명하는 영웅적인민의 속도가 조선속도라는것을 보여주었다.

김정은시대의 상징인 조선속도는 이제 백승의 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자랑찬 승리의 한페지를 새겨놓을것이다.》

절세위인을 진두에 모시고 승리의 래일을 향해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전진해가는 그 길에서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펼쳐질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래일이 앞당겨지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인민을 위한 조치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고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생명안전이 굳건히 담보되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세계적인 악성전염병을 막기 위한 6개월간의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국가비상방역사업을 강화하여 지금의 방역형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문제, 평양종합병원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봉사를 위한 인적 및 물질기술적보장대책을 강구할데 대한 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결정되였다.

이번 회의는 인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소한 자만도, 한치의 양보도 모르는 공화국의 인민사랑, 인민중시의 투철한 립장을 다시금 보여주는 계기로 되였다.

회의에서는 평양종합병원을 인민들에게 실지 최상급의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할수 있게 세계적수준으로 훌륭히 완공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시급히 대책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졌다.

공화국에 있어서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것은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확고히 틀어쥐고 실행하여야 할 최급선무, 가장 영예로운 혁명사업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정면돌파전을 철저히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일관시켜나가고있다.

인류가 악성전염병사태로 큰 고통을 당하고있는 속에서도 공화국에서는 인민적시책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고있다.

평양시와 지방의 살림집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된 지난 2월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확대회의에 이어 6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가 진행되고 평양시민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중요문제들이 토의결정되였다.

인민의 안녕을 위해서는 중대한 결단도 서슴없이 내리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낌없이 기울이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공화국이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우리 공장, 우리 제품

호평받는 룡악산비누제품들

공화국의 룡악산비누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룡악산비누제품들이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룡악산비누공장에서 생산되는 샴푸, 린스, 옷물비누, 그릇세척제 등 인민들의 기호를 충분히 반영한 물비누들과 세척제들은 그 종류만 하여도 수십종이나 된다.

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제품들은 평양은 물론 지방들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그중에서도 탈색방지효과를 가진 여러가지 재료들과 생물분해효소를 첨가한 옷물비누제품들은 다른 비누를 사용할 때보다 피부와 섬유의 손상이 없고 세척력 또한 비할바없이 높아 사용자들속에서 세탁이 잘되고 아무런 화학적 변화도 주지 않는다는 평을 받고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세척효과가 좋은 계면활성제에 기포안정제, 피부보호제, 방부제, 향료, 색감등 보조약제들을 섞어 만든 몸물비누도 그 수요가 높다.

룡악산비누공장에서는 제품들에 대한 기술갱신사업도 활발히 벌려 탈모방지, 피부보호, 로화방지 등 다양한 기능성물질들을 첨가한 비누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고 있다.

본사기자

일터와 마을에 차넘치는 애국의 마음

-활발히 벌어지는 재자원화사업-

공화국에서 지난 시기 쓸모없이 버리던 폐기물과 폐설물, 각종 생활오물을 가공처리하여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좋은 결실을 가져오고있다.

황해북도에서는 유휴자재를 기본원천으로 하여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황해북도일군들은 생활필수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우에서 보장해주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수매체계를 잘 활용하여 유휴자재들의 리용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일군들이 인민반과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나가 해설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려 그 어디서나 유휴자재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수매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고있다.

자강도의 일군들도 유휴자재를 리용해야 할 공장들에 나가 수매가격을 알맞게 정하기 위한 토의사업을 진지하게 벌리고있다.

이에 기초하여 몇개 공장을 시범단위로 정하고 경험을 창조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해나가고있다.

평양시에서 올해에 들어와 파지와 파비닐, 파수지병을 비롯한 많은 유휴자재를 수집하여 여러 단위에 보내주었다.

각지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재자원화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심의를 받아 재처리공정을 운영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제품생산의 전문화원칙, 원료보장조건, 실리보장, 환경보호의 견지에서 재자원화사업을 전개해나가고있다.

평양가방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재생원료를 리용하여 가방의 조절고리와 수지채움쇠 등을 든든하고 맵시있게 제작하였으며 생산과정에 나오는 자투리천으로 다양한 학생천필갑도 대량적으로 만들고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만경대영예군인만년필공장, 선교도자기공장에서는 지난 시기 쓸모없이 버려지던 폐기물과 폐설물, 유휴자재로 여러가지 질좋은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것과 함께 새 제품개발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도 기술자들과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공들을 발동하여 여러가지 종류의 파수지를 원료로 각종 수지일용품을 만들수 있는 공정을 새롭게 꾸려놓았다. 이 공정에서는 파수지를 선별, 세척하여 분쇄, 사출할수 있다고 한다.

지금 공장에서는 파수지를 리용하여 박막과 바께쯔를 비롯한 수십종의 제품을 생산하고있다. 또한 도안의 중요대상건설에 필요한 수지관들도 파수지를 리용하여 만들고있다.

많은 단위들에서 폐기폐설물을 리용한 제품생산일수록 질적담보를 첫자리에 놓고 더 좋게, 더 쓸모있게 만들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리고있다.

최근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파수지를 원료로 하여 개발한 사출신발에 대한 평이 대단히 좋다고 한다.

누구나 파수지로 만든 신발이라고 선뜻 믿기 어려워하고있다. 모든 질적지표가 높은 수준에 올라선데 대해 전문가들도 놀라워하고있다.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이 인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모든 질적지표에서 자그마한 편차도 없이!

이런 목표밑에 전개된 구두모양의 사출신발개발사업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애써 만든 제품에 미세한 기포가 생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주저앉지 않았다. 물성검토를 다시, 또다시 반복하면서 질적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거듭하였다.

이 과정에 구두모양의 사출신발을 완성하게 되였으나 이들은 쉽게 만세를 부르지 않았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새로 개발한 사출신발을 들고 공장주변에 있는 어느 한 고급중학교 학생들과 함흥중등학원 원아들을 찾아가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학생들은 물론 교원들의 평도 좋았다. 가볍고 편리하며 특히는 구두모양이여서 더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녀학생들은 신발에 나비모양의 장식을 해달라고 했고 어떤 교원은 아이들의 교복색갈에 맞게 신발색갈도 자주색이면 좋겠다고 스스럼없이 의견을 제기했다.

공장에서는 그후 신발의 장식과 색갈을 더욱 다양하게 하면서 품종을 늘이였다.

누가 더 좋게, 더 쓸모있게 만들었는가.

누구나 이 물음앞에 떳떳이 대답하기 위해 폐기물과 폐설물을 리용한 제품생산에서 질적담보를 첫자리에 놓고 경험도 교환하고 교훈도 찾으면서 따라앞서고 따라배우기 위한 경쟁을 벌려나가고있다.

그런가 하면 실정에 맞게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여 최대한 증산절약해가고있는 단위들도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평성애국가방공장의 종업원들은 한쪼박의 자투리도 허실될세라 작업현장에 절약함을 만들어놓고 리용하고있다.

절약함은 비록 크지 않아도 유휴자재들을 효과적으로 재생리용하여 나라살림살이에 이바지하려는 그 마음은 참으로 소중한것이다.

온 나라의 일터마다에 이런 애국의 마음이 차고넘쳐 나라의 재부는 나날이 늘어나고 부강조국건설에 큰 보탬을 주고있다.

본사기자 황금숙

◎ 땅우에는 절승경개, 땅속에는 지하궁전 ◎

❖ 개선역을 찾아서 ❖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는 평양의 지상에 새 거리와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창조물들이 솟아나고있는데 이어 지하철도역들에도 문명의 새 모습이 펼쳐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지난해에 지하철도의 개선역과 통일역이 현대적으로 꾸려진데 이어 올해에 들어와 또다시 전승역과 전우역이 새로 개건되였다.

얼마전 우리는 지난해에 훌륭히 개건된 개선역을 찾았다.

평양의 자랑인 경치아름다운 모란봉의 절승경개와 잘 어울리게 멋들어지게 단장한 역사외부도 멋있지만 역사안은 화려한 궁전에 들어선듯 절로 감탄이 나왔다.

불빛찬연하고 시원한 계단승강기홀의 천정조명과 장식들도 특색이 있었지만 만경봉과 백두산밀영고향집, 리명수폭포, 주체사상탑, 천리마동상 등을 형상한 사진작품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의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지 후덥게 돌이켜보게 했다.

이어 우리는 계단승강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다.

아치형의 무늬들로 화려하게 장식한 천정장식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내려가 지하홀에 들어서니 개선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존귀하신 모습을 형상한 동상의 량쪽벽면에 수령님을 우러러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인민들의 모습과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대형벽화가 형상되여있었다.

대형벽화들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숭엄한 감정으로 되새겨보게 했다.

조형화, 예술화수준이 높고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이 철저히 구현된 조명장식, 천정장식, 건축장식, 벽면장식들로 하여 역사안은 말그대로 지하궁전을 방불케 했다.

의자에 앉아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신문게시판에서 새 소식을 읽어가는 사람들, 액정TV를 보는 사람들…

역구내에서는 지하전동차들이 쉴새없이 오고갔지만 황홀한 지하홀의 여기저기에 눈길을 팔며 시간가는줄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새로 개건된 개선역을 리용하는 사람들마다 정말 볼라보게 변모되였다, 우리 조국의 약동하는 기상, 더 밝고 아름다와지는 모습을 지하궁전안에서도 느낄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지하전동차가 미끄러지듯 역구내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미남자처럼 잘 생긴 새 지하전동차에 올랐다.

본사기자 김춘경

한여름의 더위도 식혀주며

요즘 평양시내의 곳곳마다에 《얼음꽃》풍경이 펼쳐져 사람들의 마음을 흥그럽게 해주고있다.

보기만 해도 상쾌하고 청신한 《얼음꽃》풍경—빙수매대이다.

빙수는 얼음을 잘게 갈아 눈과 같이 만든 다음 사탕, 과일즙 등을 섞어 만든 청량음료의 한가지이다.

빙수의 종류도 도마도빙수, 팥빙수, 딸기빙수, 들쭉빙수, 아이스크림빙수, 요구르트빙수 등 여러가지여서 사람들은 자기의 입맛과 기호에 맞는 빙수를 요구한다.

도마도빙수는 도마도, 사이다, 소금 등을 주원료로 하여 빙수의 시원한 맛을 살리고 팥빙수는 팥졸임, 찹쌀, 쑥가루 등을 가지고 만든것이다.

빙수의 영양가 또한 높아 어른, 아이 할것없이 누구나 좋아한다.

갖가지 과일들과 찹쌀가루를 비롯한 여러가지 재료들을 첨가하여 만든 특색있는 빙수는 눈맛도 돋구고 풍부한 영양성분으로 하여 건강에 아주 좋다.

한낮의 더위를 가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빙수매대들을 찾군 한다.

흰눈처럼 정갈한 그릇에 듬뿍 담긴 갖가지 색갈의 빙수들을 시원하게 들면서 사람들은 더위가 순간에 날아나는것 같다고 말한다.

《봉사원동무, 요전번에 보니 팥빙수가 맛이 좋더군요. 한그릇 주십시오.》

《우린 도마도빙수를 주세요.》

봉사원의 말에 의하면 이전의 빙수는 갈아놓은 얼음우에 팥, 도마도 등으로 만든 즙을 부은것이였으나 최근에 새로운 빙수제조방법들을 받아들여 맛좋고 영양가 높은 다양한 빙수들을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하고있다고 한다.

그는 빙수매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 손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빙수를 맛있게 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제일 기쁘다고, 그래서 힘든줄 모르겠다며 웃었다.

《맛있게 먹고 갑니다.》

《또 오십시오.》…

시내의 곳곳에 꾸려진 빙수매대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생활의 한 단면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세계문자들의 순위 첫자리
조선어문자

자질문자란 말소리를 적는 바탕글자이다.

세계 여러 민족들의 말을 하나의 문자로 쓰려면 그 문자가 모든 민족어의 말소리를 표기할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표기하기 쉽고 리해를 빨리 할수 있어야 한다.

1444년 1월에 창제된 훈민정음에 대해 세계언어학계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조선말의 특징은 첫째로, 말소리가 매우 풍부하며 둘째로, 어휘가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째인것이다. 셋째로, 과학성과 편리성이 잘 보장된것이다. 즉 기본글자의 제작원리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점, 기본글자로 점차 획을 더해주는 방법으로 다른 글자들이 정연하게 파생되여있는 점과 자획이 간단하여 배우기 쉽고 쓰기도 편리한 점 등의 우수성이 있다.

영국의 음성언어학자 제프리 삼슨교수는 조선어가 발음기관을 상형화하여 글자를 만들었다는것도 독특하지만 기본글자에 획을 내는 방법은 대단히 체계적이고 훌륭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여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에서는 훈민정음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였다.

유네스코에서는 말은 있지만 글이 없어 고생하는 소수민족들에게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그들의 말을 조선글자로 표기하도록 가르치고있다. 조선어는 과학적인 언어여서 쓰기가 편리하기때문에 지구상 거의 모든 민족어들을 표기할수 있는 글이다.

20세기말 프랑스에서 진행된 세계언어학자들의 학술토론회에서는 에스페란트어가 너무 협소하기때문에 조선어를 세계공용어로 쓰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기되였다.

그는 또한 조선글이 소리글자이지만 새로운 높은 단계의 자질문자로 된다고 평가하였다. 그의 이러한 평가는 조선글이 세계적으로 유일한 자질문자로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는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언어학계에 명문대학으로 알려진 영국 옥스포드종합대학 언어학대학에서는 합리성과 과학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세계 모든 문자들의 순위를 정하였는데 조선어문자가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주영진

수영경기의 유래

수영은 인류사회의 발생과 함께 로동생활과정에서 생겨난 가장 오랜 체육종목이다.

원시인들은 물에서 고기들이 헤염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자신들의 생활수단의 하나로 받아들였으며 바다와 호수, 강에서 자맥질로 물고기와 조개 같은것을 잡아먹으며 살아가는 과정에 헤염치는 법을 배웠다.

고대에 이르러 수영은 군사적측면에서 많이 리용되였다.

본격적인 수영경기대회의 틀거리는 영국에서 시작되였다.

19세기에 영국에서 수영애호가들이 모여 영국수영협회를 무었다.

협회에서는 수영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선수들에게 상금과 메달을 수여하였으며 이 대회는 30년이상 계속 열렸다.

현대수영은 각 민족협회들의 창설과 현대올림픽경기가 진행되면서 발생발전하였다.

국제아마츄어수영련맹(FINA)은 1908년 7월 19일 영국에서 34개의 나라가 모여 창립되였다.

공화국은 1964년 4월에 국제아마츄어수영련맹에 가입하였다.

본사기자

관심을 모으는 기능성운동깔판

공화국의 기술자들이 국내자원에 의거하여 연구개발한 새로운 기능성운동깔판이 체육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 운동깔판은 종목별특성에 맞게 재료의 배합비률을 과학적으로 맞추어놓고 체육관이나 야외운동장의 일정한 면적에 직접 입히는 방법으로 설치할수 있으며 두께와 튐성, 미끄럼도와 같은 기술적지표들을 충분히 만족시키고있다.

또한 종전의 운동깔판들에 비하여 변형이 거의나 없고 해빛, 바람, 비, 습기 등 자연적인 영향을 적게 받기때문에 수명이 길다.

체육단들과 기관, 기업소, 학교 등에서 이 운동깔판을 도입하고있다.

전문가들과 사용자들속에서는 종전 쪽무이운동깔판에서 나타나고있던 갈라터짐현상과 높낮이차이, 튐성과 마찰력의 차이 등의 결함들이 전혀 없다고 평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왜 7~8월에 많은 비가 내리는가

7~8월에 덥고 습한 태평양상의 해양성열대기단과 적도기단이 조선반도로 흘러드는데 이 공기가 더운 륙지에 올라서면서 더 더워져 우로 올라가게 되고 다시 랭각되여 비구름을 형성한다.

조선반도에서 해양성기후의 영향으로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는 6월말~7월초이다.

이 시기에 중위도전선대가 조선반도지역 부근에 놓이는데 이 전선대상에서 발생발전하는 저기압들이 조선반도를 지나갈 때 특별히 많은 비가 내린다.

7월말~8월초, 8월말~9월초에 중국 장강과 황하류역에서 발생한 저기압과 필리핀동남해상에서 발생한 태풍이 조선반도로 이동할 때 많은 비가 내린다.

그러므로 7~8월을 중심으로 장마가 진다.

본사기자

민족음식

섭조개숙회

섭조개숙회는 섭조개를 끓는물에 살짝 데쳐 양념에 무치거나 찍어먹는 음식이다.

섭조개의 단백질에는 모든 필수아미노산들이 골고루 들어있는데 특히 빈혈을 예방하는 리진과 성장발육에 필요한 로이신이 많이 들어있다.

이외에 섭조개에는 지방, 당질도 들어있을뿐아니라 광물질과 비타민A, B, C 그리고 프로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 구루병의 예방치료에 좋다.

섭조개는 몸이 허약한데, 어지럼증, 귀울이, 고혈압, 음위증, 식은땀이 나는데 먹으면 좋다.

음식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섭조개 1, 쑥갓 0.3의 비률로 음식감을 준비한다.

섭조개는 끓는물에 잠간 넣었다가 꺼내고 살을 떼내여 큰것은 절반으로 썬다.

접시에 쑥갓을 돌려담고 섭조개살을 담아내고 초고추장을 곁들여 낸다.

이렇게 하면 맛좋은 섭조개숙회가 완성된다.

본사기자

2019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 (2)

나라의 광업발전에 기여한 과학자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 소장이며 박사, 부교수인 정철은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제3선광장에 공기기계식부선기에 의한 연, 아연선광공정을 확립하여 에네르기절약형, 로력절약형, 부지절약형선광장으로 전변시키는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광업발전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연구소의 책임일군으로서 세계적인 과학기술발전추세에 민감하기 위해 피타게 노력하고있다.

하기에 그는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제3선광장을 현대화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정확히 포착한데 기초하여 연구사업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연구소가 세계적인 부선기발전추세에 맞으면서도 구체적실정과 현장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공기기계식부선기를 연구개발하고 이 부선기에 의한 연, 아연선광공정의 확립을 과학기술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게 하였다.

사색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그는 사업으로 바쁜 속에서도 책읽기를 즐겨하며 부단한 창조를 주장한다.

이런 습벽과 기질이 그를 광업부문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던 광물재료분야를 개척하는 초행길을 걷게 하였으며 초미분쇄분야의 무시할수 없는 권위자로, 국가적의의가 큰 첨단수준의 고체윤활제의 개발자로 되게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오늘도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여난 자기를 중앙광업연구소의 책임일군으로 내세워준 나라의 은덕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과학연구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민족회화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심사정과 《여름의 산막》

심사정은 18세기를 대표하는 재능있는 화가의 한사람이다.

그는 이름있는 화가 정선의 지도밑에 선배들의 유명한 그림들을 연구하고 좋은 점들을 배우면서 화법을 꾸준히 련마해나갔다.

이 과정에 심사정은 조화롭고 정교한 필법으로 묘사대상을 그려내는 사실주의적 화풍을 이룩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풍경화에서 대표작의 하나로 되고있는 심사정의 《여름의 산막》은 수묵담채화로 산골마을의 여름풍경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갖가지 나무들이 우거진 산골짜기를 따라 맑은 물이 감돌아흐르고 기묘한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선 아늑한 숲속에 참외막같은 다락이 서있는데 그안에는 자연에 도취된 한 선비가 앉아서 시상을 무르익히고있는 모습이 그려져있다.

그리고 그옆 담장안에서는 한쌍의 백학이 거닐고 담장밖에서는 나무단을 안은 두 인물이 서로 무엇인가 정답게 속삭이며 걸어가고있다.

화가는 화면구성의 치밀성과 부드럽고 우아한 선의 효과, 먹선과 채색의 조화로운 구사, 세련된 필치로써 오래전 산간지대의 향토미를 민족적정서에 맞게 훌륭하게 묘사하였다.

심사정은 산수화뿐아니라 동물, 꽃과 새 등도 잘 그렸으며 산좋고 물맑은 조선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한 그림들을 많이 남기였다.

그중에서 《꿩과 매》, 《꽃과 나비》, 《석류와 금계》 등이 대표적이다.

《꿩과 매》는 화면 중심의 바위우에 내려앉은 매를 크게 그리고 그아래에는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는 꿩을 그린 수묵담채화로서 자연속에서 벌어지는 동물들의 세계를 실감있게 보여주었다.

심사정은 백성들의 생활을 현실그대로 반영하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지만 자연풍경을 선명하고 간결한 전통적화법으로 생동하게 그린 작품들을 적지 않게 창작한 우리 민족의 우수한 화가이다.

김주익

수묵담채화 《여름의 산막》 (심사정 작)

유모아

어머니는 어떻게 할가

선생님이 한 처녀애에게 문제를 내주었다.

《일요일이다. 네가 아버지, 어머니, 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다. 어머니가 일어서더니 식후음식으로 맛있는 빵을 나누어주려고 한다. 꼭같이 나누어주려면 몇쪼각으로 잘라야 하니?》

《네쪽으로 잘라야 합니다.》

《맞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너의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 사촌동생이 갑자기 들어왔다. 어머니는 어떻게 나누어야 할것 같니?》

《빵을 찬장에 감춥니다.》

사화

노루친 몽둥이 3년 우리다 (2)

글 리유근, 그림 채대성

언젠가 타성을 가진 한 량반이 그의 선산에 있는 묘자리가 탐이 나서 몰래 썼다가 그에게 발각되여 된경을 치르고 그날로 도로 파갔다는 이야기는 오늘도 웃지 못할 화제거리로 남아있다.

학당골의 송씨문중들은 이를 더없는 긍지로, 자랑거리로 여기고있는터였다. 그들은 자기네 밀양송씨가문이 이처럼 대대로 번성하고 화목하게 사는것도 다 송생원이 좌상으로 앉아 그렇듯 문벌을 중시하고 조상을 잘 받들어온 덕이라고 믿고있었다.

송생원이 선영을 잘 돌보고 분묘제향(제사)을 극진히 하는데는 또 다른 하나의 원인도 있다.

그는 장발한 아들 하나를 장차 가문의 혈통을 이어나갈수 있도록 잘 키울 결심이였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법도를 배워주고 그 법을 엄격히 지킬것을 요구했다. 그가 부모 3년상을 다 초막에서 치르고 몸이 축가 거의 죽게 되여 내려온데는 아들이 그 행적을 본받게 하자는 의도도 깔려있었다. 그래 아들이름도 제사를 잘 받들라는 뜻에서 《받들 봉》자와 《제사 사》자를 써서 《봉사》라고 지었다. 허나 아들은 부친의 그 지성을 본받으려 하지 않았다. 외떡이 선다고 철들기 전부터 놀음놀이에만 정신을 팔더니 장가를 보내여 철이 들어서는 난봉군이 되고 말았다. 무과시험을 친다고 서울에 올라가서 한량건달들과 섭쓸려다니며 기생방출입에 조명이 났다는 소문까지 들려왔다.

벌써 적지 않은 가산을 탕진했으니 그냥 놔뒀다가는 얼마간 남아있는 전장마저도 거덜이 날것 같았다. 타일러도 소용이 없었다. 다 큰 자식에게 종아리를 칠수도 없고 이래저래 속을 썩이던 송생원은 마침내 그것이 화병으로 되여 시름시름 앓다가 아예 자리에 눕고말았다.

이제 제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스스로 판단한 그는 여러 친척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유언을 남겼다. 아들이 더는 가문을 망치지 않게 잘 타이르라는것과 조상제사를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제때에 신칙하라는 당부였다.

그때 정도령도 마침 송생원네 집에 들렀다가 그 자리에 참석하였었다. 송생원은 운명하는 순간에 그의 손을 꼭 부여잡고 전에 자기가 한 부탁을 부디 잊지 말라고 재삼 당부했다. 그래 오늘 정도령은 송생원의 유언대로 묘자리를 좋은 곳에 잡아주었다. 앞은 남향이 탁 트이고 뒤로 밋밋한 구릉이 반달형으로 빙 둘러막힌 대지로서 《선인기학지형》 즉 신선이 학을 타고 날아오르는 형국이였다. 이런 곳에다 묘를 쓰면 자손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그의 말에 온 송씨문중은 너나없이 좋아하였다.

송생원의 아들 봉사는 온 서울장안을 돌아치며 난봉을 피우다가 부친 상사기별을 받고 그만 속이 뜨끔하여 부랴부랴 내려왔다. 아닐세라 온 일가문중이 달라붙어 가문에 먹칠을 하는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밀구멍이 빠지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래도 봉사는 제가 한짓이 있는지라 나 죽었소 하고 뻐꾹소리 한마디 못했다. 그들앞에서 제발 잘못을 개여올리며 이제부터라도 제향봉사를 잘하겠노라고 빌어서야 겨우 봉변을 면했다. 아까 베감투에 맏상제옷을 입고 상여뒤를 따라가다가 상여군들이 애먹이는것을 보고 서슴없이 돈꿰미를 안겨준것도 바로 이런 연고가 있기때문이였다.

상여군들이 애먹이는것은 상제들의 돈을 우려내여 나중 술상을 차리는데 쓸 비용을 얻는것으로서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풍속이기도 했으나 봉사의 호의가 아니였던들 그처럼 많은 돈이 차례지지 않았을것이다.

정도령은 봉사가 효도는 잘못해도 《통이 큰》 사내임을 곧 알아차리고 어떻게 그를 구슬릴가 속으로 점을 쳐보았다. 송생원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상당한 재산을 남기고 죽었으니 이제 그 모든게 봉사의 차지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또 봉사가 그것을 고스란히 지켜내여 후손들에게 돌려줄리도 만무하였다. 정도령은 흘러가는 그 재산의

는 의외로 불룩해졌다. 가지말라고 다들 붙들어서 그는 며칠을 더 묵으며 륭숭한 대접을 받다가 매장뒤 세번 지내는 삼우제까지 참례하고야 떠나갔다.

봉사는 벌써 근 1년나마 려묘살이를 하고있었다. 한량건달로 떠돌아다니던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으로 죽을 맛이였다. 무늬아롱진 통영갓 썼던 머리에 패랭이 쓰고 매끈한 미투리 신던 발에 짚신 신고 사철 삼베옷에 삼시 미음만 에우자니 그야말로 하루가 천년맞잡이였다.

부친의 전례로 보아 려묘살이고통이 큰것은 짐작했지만 이처럼 참기 어려운줄은 정말 몰랐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콱 집어치우고 내려가고싶었지만 아버지의 유언도 있고 또 일가문중의 저주의 눈총이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하루하루 참아내는중이였다. 그러자니 요즈음은 신상이 말이 아니였다.

생사람을 말리워죽이는 이런 례절이 무엇에 필요한가?

그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 소위 성현이라 자처하며 이따위 작폐를 고안해낸 자들을 저주했다. 하긴 그럴만도 하였다. 효자의 표징이 첫째로는 생전에 부모공양을 잘하는것이고 다음으로는 사후에 제사를 잘 받드는것이라고 말한다. 그런즉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부모가 죽을병이 나면 극진한 구완과 함께 필요하다면 넙적다리살이라도 베여 대접해야 했다.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입에 흘려넣는 《단지》도 있었다. 이도 조련치 않은 일이였지만 사후 제사법만은 정말 번페스러웠다. 그중에서도 분묘곁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올라가 3년을 살아야 하는 려묘살이는 더구나 못할노릇이였다.

아무리 추워도 불을 쬐일수 없고 먹고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수 없었다. 고기는 말할것도 없고 밥도 못 먹고 꼭 맹물에 미음을 마셔야 했다. 찬은 산나물이나 채소반찬밖에 못 놓아먹었다.

한두달도 아니요 3년동안을 이렇게 살아야 했으니 그 고통이야 오죽했으랴. 이 계률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돌아가신 부모에게 죄되는 일로서 효자의 도리를 상실한 무도한 놈으로, 죄인으로 치부되였다. 그러니 꼼짝 못하고 억지로 참고 견디여내야 했다. 3년상을 이렇게 치르고나면 거개 다 골병이 들거나 심한 경우에는 죽는 참사까지 일어났다.

하지만 봉사는 그러고싶지 않았다. 하도 문벌이 세고 또 가풍이 그래서 초막에 올라와있기는 하지만 종래의 가례를 그대로 따를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얼마를 그렇게 살아보니 그야말로 허무하기 그지없었다.

어느날 그는 음식을 날라다주는 반빗아치에게 가만히 일렀다.

《이보라구, 내가 지금 기력이 다 빠져서 누워있기조차 힘든데 종일 묘지앞에 버티고 서있자니 죽을 지경이구만. 음식을 좀 달리 먹어야겠어.》

《그건 어떻게…》

《음, 이제부터 소찬대신 고기반찬을 놓고 미음대신 밥을 가져오게.》

《네? 그랬다가 쇤네가 벌을…》

반빗아치는 펄쩍 뛰였다.

《아아, 일없다니깐. 내려가서 아씨에게 그렇게 이르라고. 그런데 이 사실이 절대 루설되면 안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란 말이야.》

주소 :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